

판박이 결혼문화

김은남 / 시사저널 문화팀장

“난 자신있어. 절대로 들키지 않을 자신!”

최근 영화로도 제작돼 큰 인기를 끈 소설 <결혼은, 미친 짓이다>의 여주인공은 결혼 뒤에도 남편과 애인을 오가는 두 집 살림을 하겠다고 이렇게 장담한다. 죄의식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없어 보이는, 이 여성에게 결혼의 낭만 내지 신성불가침성을 설파한다는 것은 무의미한 일로 보인다.

그런가 하면 텔레비전 트랜드드라마의 한 여주인공은 다른 남자와 잔 과거를 놓고 ‘그렇게 막 살았냐’며 추궁하는 새 애인에게 이렇게 말한다. “나, 막 산 적 없어요. 한 사람을 만나서 연애했고, 아주 사랑했어요.” 진지하고 단호한 그녀의 대답 앞에 혼전 순결 따위를 들먹거리는 것 또한 상당히 객쩍은 일로 보인다.

성(性)과 사랑에 대한 신세대들의 의식은 무섭게 바뀌고 있다. 결혼이 ‘순수한 사랑의 결실’ 이기보다 ‘경제적 손익 계산에 따른 쌍방의 거래 행위’임을 일찌감치 깨달은 이 영악한 세대는 연애 따로, 결혼 따로의 실행 파일을 통해 보수적인 부모 세대와의 타협을 도모한다. 결혼보다 동거를 선호하는 것 또한 이들 세대의 특징이다. 섹스는 반드시 배우자가 될 사람과만 해야 한다는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모를까, 짝짓기의 본능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동시에 불합리한 가족제도로부터 일정하게 자유로울 수 있는 이 제도를 나름의 합리적인 대안으로 선택하려는 신세대는 앞으로 빠르게 늘어갈 것 같다.

그런데 문제는 결혼을 선택하는 순간 이들이 너무도 쉽게 기성의 질서에 투항해 버린다는 사실이다. 최근들어 후배들의 청첩장을 받는 일이 우연히도 많았던 나는 결혼식

장에 갈 때마다, 과장 조금 보태 숨이 턱턱 막힐 것 같은 갑갑증에 사로잡히곤 했다. 보수적인 집안 분위기에 사랑하는 여자를 희생시키고 싶지 않아 연애만 하고 살겠다고 남자 후배 A나, 일급 동시통역사가 되기 위해 독신을 고집 하겠다고 여자 후배 B. 내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던 이 후배들이 일단 결혼을 결심한 다음에는 어찌 그리도 판에 박은 듯한 코스를 반복하는지. 똑같은 예복에 똑같은 주례사, 똑같은 기념 촬영에 똑같은 피로연, 똑같은 신혼여행지. 사진 몇 장, 비디오테이프 하나 남기는 데 2백~3백만원씩 들여야 한다는 야외 촬영과 비디오 촬영만 빼면 삼십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변하지 않았을 듯한 결혼식 풍경에 나는 그만 기가 질리고 말았다. 게다가 나중에 집들이라고 가 보면 혼수는 또 왜 그렇게 비슷비슷한지. 이에 대해 형식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반박하는 사람도 물론 있을 것이다. 어차피 제도에 편입되기로 한 바에야, 양쪽 집안 비위 맞춰 예단 교환하고 결혼식 좀 성대하게 올린 게 뭐 대수냐고. 결혼 이후 두 사람이 내실을 갖춰 잘 살면, 그것으로 된 것 아니냐고. 그렇지만 철학자가 아닌 보통사람이 생각하기에, 내용과 형식은 그렇게 쉽게 떨어뜨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좀 고상한 말로 표현하자면, 형식이 내용을 규정한다고 할까. 남들 따라 유행 패션 쫓듯 결혼식을 치르는 행위가 남들 따라 아파트 평수 따지고, 남들 따라 불륜을 저지르는 의식으로 발전하는 것은 순식간이다. 누가 뭐래도 ‘나는 나’라고 당당하게 주장해 온 신세대. 이들의 넘치는 개성과 발랄한 상상력이 지리멸렬한 우리의 결혼 문화를 바꿔놓는 모습을 보고 싶다. ■■■■